

地上神仙의 科學哲學

崔永泰*

目次

I. 宇宙平和의 實現	2. 고려
1. 人間仙境의 歸着	3. 근세
2. 宇宙平和實現의 길	4. 현대
II. 上帝확신의 科學哲學	VI. 四次元의 지상신선
1. 上帝확신에 대한 과학철학적 접근	1. 시간의 지상신선
2. 地上神仙의 철학적 접근	2. 靜的인 지상신선
III 人間개조와 지상신선	3. 素粒子神明의 지상신선
IV. 大同과 지상신선	4. 未來의 지상신선
1. 生者和 死者의 地上神仙	VII. 天道와 지상신선
2. 【正】과 지상신선	1. 天地垂察과 지상신선실현
3. 【大同】과 지상신선	2. 布德世人과 지상신선실현
V. 彌勒과 지상신선	3. 天道와 지상신선실현
1. 삼국	VIII. 結論

I. 宇宙平和의 實現

1. 人間仙境의 歸着

天地人の 우주 共通的인 存在(Sein) 속성은 하이젠벨그 정리에 따르면 실재(Existence 半 50%)와 현상(Phenomena 半 50%)으로 대별되어 구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재는 파동이며 냄새도 색깔도 없다. 이는 공간 시간 및 질량의 개념으

* 前 東國大 教授, 理學博士

로 설명되지 않는 존재이며 사진 필름에 찍혀 나오지 않는 존재이다.

인간에게는 정신 마음 神明 생명력으로 표현된다.

현상은 물질이며 냄새도 있고 색깔도 있는 존재이다. 공간 시간 및 질량의 개념으로 설명되는 존재이다. 사진 필름에 찍혀 나오는 존재이며 人間에는 피부 골격 근육 모발 오장육부 조직세포 등으로 표현되는 존재이다.

甌山은 인간 마음의 근본에 있는 불행의 씨앗인 원한을 완전히 없앴으로서 인간 본연의 〈사랑의 마음〉 互生の 덕을 회복하여 仙境으로 돌아가 지상신선으로 돌아가자고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인간의 정신 神明 생명력 속에 있는 불행의 씨앗인 원한을 완전히 소멸시키므로써 해원상생하여 지상신선을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인간 존재를 구성하는 물질의 상생 神明의 相生이 선행되어야 한다. 피부 골격 근육 오장육부로 된 인간의 입자 물질 및 생리상의 상생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반드시 인간 개개인의 神明相生이 이루어져야 하며 아울러 물질상생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인간 間의 神明相生 및 物質相生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간 神明의 相生과 物質相生을 위한 인간 개개인 및 인간 間의 相生이 이룩되어야 自然속에 거니는 神聖君子가 아닌 생산적이고 활동적인 국가 및 세계 속의 生産因子로서의 道通君子가 되며 同伴者가 되는 것이며 비폭력 평화적으로 후천개벽의 혁명을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이다.

天地人 共히 우주는 物質과 神明 卽 粒子和 波動의 반(50%) 반(50%)으로 구성하여 하나(100%)되어 존재한다.

고로 우주의 평화가 이루어져야 지구의 평화도 人間의 平和도 이루어지는 것이다.

宇宙의 平和가 이룩되려면 물질과 정신 粒子和 波動 色界와 非色界 양과 음이 조화되는 곳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기에서 지상신선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냄새나는 것과 냄새나지 않는 것, 만져지는 것과 만져볼 수 없는 것, CGS 단위 대상이 되는 것과 대상이 될 수 없는 것, 形而下學的 대상인 것과 形而上學的 대상인 것이 조화되는 곳에 宇宙平和의 길이 열리게 되며 地上神

仙 實現의 길이 열리는 것이다.

2. 宇宙平和實現의 길

全大宇宙에 존재하는 九天 총 우주의 무게를 영국의 〈에딩톤〉은 시그마 아이 하나에서 무한대까지 〈2의 엔 자승을 역수〉로 한 총수로 공식 算定한 결과 1이 나온다. 이것이 전 대우주의 전체무게인 것이다.

이 속에 존재하는 총 현상과 총 실제의 합체에 平和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전 우주가 가진 현상과 실제의 평화가 이루어져야 우주 평화 실현의 길이 트이는 것이다.

神은 모든 大宇宙의 内部에 50% 존재한다. 고로 人間의 内部에도 50%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人尊이 存立하게 되는 것이다.

天尊과 地尊이 人尊과 本來 같은 법도로 대순하게 된다.

宇宙의 神明을 平和롭게 해야 人間이나 民族이나 國家나 世界가 平和롭게 되는 것이다.

人類는 오랫동안 인간적 가치로서 〈진, 선, 미〉의 극치로서의 성인을 대망해 왔다. 그러나 그런 성인의 출현에도 인류는 결코 행복하지 못했다. 그리하여 그 행복의 추구를 위해 인류는 첫째 사회적 가치로서 자유 평등과 평화를 둘째는 진선미가 제도화 된 행복의 보장을 목적으로 혁명을 하게 되었다.

고로 全大宇宙 속의 인류, 地界, 天界의 평화 실현은 바로 해원상생을 통한 물질계와 정신계 粒子界와 波動界 일체의 통정 순환에 있는 것이다.

막힌 곳을 뚫어야 가능한 것이다.

정신과 물질, 天界와 地界, 波動과 粒子, 음과 양, 비색계와 색계가 조화되는 곳에 宇宙平和의 길이 열리는 것이다.

고로 인간으로 있으면서 神明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人間의 死後가 아니라 바로 生前에 神仙이 될 수 있는 길의 생각이 바로 大巡思想인 것이다.

태극이 진행하는 것은 음양으로 대순하는 것이다. 음양은 相廻이 아니라 相生이며 음양 相補하는 것이다.

태극의 진행은 실제와 현상의相生이며波動과 粒子의 相補이고 비색계와 색계의 대순인 것이다.

형이상학이 대상으로 하는 실제와 형이하학이 대상으로 하는 현상의 진행은相生인 것이다.

眞境에서는 하나의 종교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가 共存하며 어느 하나의 文明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文明이 共存한다 하였다.

교로 形而上學의 대상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形而下學의 대상도 같이 共存하며 相補하여야 하는 것이다.

II. 上帝·확신의 科學哲學

1. 上帝·확신에 대한 과학철학적 접근

甌山은 神을 인간 안으로 끌어드린 것이다. 이는 바로 하이젠 벨그의 실체가 인간 안에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즉 9天 대우주계에 존재하는 50%의 실체가 바로 神明이며 이 신명은 人間에게도 地界에도 天界에도 각각 50% 존재함을 확인한 內容이 바로 存在論인 것이다.

九天 大宇宙의 神明이 현실에 있음을 확인한 위대한 확신인 것이다.

人間 存在의 半인 피부 근육 골격 오장 육부 등의 물질 外에 나머지 半인 정신 마음 생명력이 현재에 존재함을 확인한 것은 위대한 과학 철학적 확인이며 혁명적 확신인 것이다.

甌山은 인간 개개인이 스스로 道通하므로써 良心의 神聖을 확신한 것이다.

그는 모든 종교의 신들을 모두 긍정하고 그 신들의 平和共存이 人間の 平和共存을 보장할 것임을 확신한 것이다.

그가 이룬 〈上帝라는 확신〉은 宇宙 최고위에 오르기보다는 인간에게 최고의 奉仕를 하기 위함이 分명한 것이었다. 그는 모든 종교의 신들을 모두 긍정하고 그 신들의 平和共存이 인간 및 우주의 平和共存을 보장하리라는 것을 확신한 것이 바로 혁명적 철학적 및 위대성인 것이다.

大巡은 조화 相生의 길이며 九天大宇宙의 진리가 바로 대순인 것이다.

人類는 勿論이고 地界 및 天地萬物에게 봉사하겠다는 그의 上帝의식은 종교계의 <혁신적 개혁> 임이 분명하다.

그의 人尊思想과 上帝의식은 九天大宇宙의 存在論的 科學哲學的 民主主義的인 思想인 것이다.

2. 地上神仙의 철학적 접근

神明은 九天 大宇宙의 半을 占하고 있다. 이 神明은 지역신 기능신 善神 惡神의 類型으로 자연계 영혼계와 人間界에 무한히 존재한다.

甌山은 이 모든 神의 最高地位에 宇宙神으로서의 上帝를 인정하여 神들을 모두 통일시켰다.

九天宇宙存在의 本質은 실재와 현상의 合一로서 존재한다고 함이 과학철학의 접근점이다.

실재는 神明性 波動性 非色性 靈魂性 形而上學性으로 표현될 수 있다.

현상은 物質性 粒子性 色性 形而下學性으로 표현된다.

문제는 九天 大宇宙가 存在하려면 神明과 粒子가 合一되어야 九天의 全大宇宙가 存在할 수 있는 것이다.

甌山은 이 위대한 合一力을 가진 절대 지배의 神明에 上帝이며 自身이 바로 九天 全宇宙의 조화 및 平和共存을 위해 全人類는 勿論이고 天地萬物에게 봉사하겠다는 召命의식의 專任者임을 自認 自證한 것이다.

自身이 터득하고 自覺하여 道通하였으니 神明公事 개혁공사 도수공사 세운공사 교운공사 운회공사 인존공사 해원공사 명부공사 등으로 음양합덕하여 神人이 조화되어 道通眞境의 세계를 마련한 새 宗教哲學의 위업을 남겼음은 分明하다 할 수 있다.

九天大宇宙의 神明 및 物質의 위대한 合一力은 바로 성냥껍질과 성냥 알갱이가 붙어 나는 원리와 같이 육체와 생명력 물질과 神明 粒子和 波動 이 부딪치게 하는 계기력(契機力)者가 바로 上帝이며 그가 바로 合一力者인 것이다.

모든 神明과 物質의 支配力者가 바로 上帝임을 先覺한 최초인이 바로 甌

山이다.

바로 自身이 그 기능을 감당할 召命을 받은 사람임을 自覺 터득한 것이다.

甌山の 上帝의식은 현실 地上의 道通한 모든 사람에게 다 다다를수 있는 境地라고 先覺했다. 모든 사람은 神仙眞境의 세계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甌山은 道通을 人間心中의 본래 양심을 회복한 상태라고 하고 이를 上帝라고 하였다. 이것이 人間心中에 內在해 있던 본래의 神仙을 自覺한 存在라고 보면 대순의 정산 상제시는 甌山の 사상을 進一步 시킨 면이 있다 할 것이다.

정산의 이 神仙은 山上에 앉아 백발을 한 모습으로 비활동적으로 존재하는 神仙이어서는 아니 된다.

이 神仙은 當面 地上의 현실 世界에 너무 비현실적이고 非生産的이므로 이는 인간의 심성이나 마음에 새겨진 道通眞境의 현실적이고 생산적인 地上 神仙이어야 하는 것이다. 現實的이고 經濟社會 活動的인 道通人의 神仙은 活動的 神仙 生産的 神仙 經濟社會的 神仙이어야 할 것이며 이런 정리 정돈된 神仙意識으로 人間改造가 이루어져야 한다.

Ⅲ. 인간개조와 지상신선

人間의 마음은 天地人의 中心軸이며 귀신의 中心이고 인간의 吉福을 주는 本源인 것이다.

人間의 吉福을 주는 것은 神도 아니며 부처도 아니라 성결도 아니며 바로 인간의 마음이 그 백리이고 本源인 것이다.

大巡思想에서 인간 존엄성을 自覺한 것은 인간이 조직도 부리고 기계도 부리고 神도 부리는 大自由를 얻게 된 것이다.

이때까지 인간은 神의 노예가 되어 부자유하였고 조직이나 기계의 노예가 되어 不自由했던 것이다.

甌山은 萬教 통합의 기초는 水雲의 東學에 있고 동학의 기초는 우리 민족

의 神仙思想에 있다 하였다.

한국의 憲法全文에는 3·1운동의 정신을 받아있고 3·1운동의 정신은 동화사상을 바탕으로 있으므로 한국의 법통은 우리민족의 神仙思想에 기초하고 있다 할 것이며 李朝 정도전의 經濟六典 뿌리사상인 理(물질) 氣(정신) 二元論에 연유하고 있다 할 것이다.

理(물질)는 입자성을 가지며 色性を 가지고 九天大宇宙에 半은 점하고 있으며 氣(정신)는 타동성 신명성을 가지고 비색성을 가지며 大宇宙의 半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고로 한국의 法通은 九天大宇宙의 실재와 현상의 존재원리에 합당하게 되고 있어 대한민국 국민은 선도하여 생산적인 地上神仙 의식개조로 天下 大巡의 軸을 밀고 나가야 法通을 가진 것이다.

人類는 경제 사회적으로 神仙의식을 개조하여 人間改造로 人類平和 世界平和 및 宇宙平和를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이다.

甌山은 無自欺를 통한 人間改造로 布德天下 救濟蒼生 輔國安民으로 地上神仙을 實現하여 地上天國을 건설하려는 目標를 이미 世紀 前에 세워 數百萬道人이 地上神仙 實現에 先導하고 있다.

IV. 〈大同〉 과 地上神仙

1. 生者와 死者의 地上神仙

生者는 존재의 질량 시간 공간을 超克한 半을 占하는 신명성 생명성 무색성을 가지는 실재와 色性 물질성을 가지는 현상을 半이나 占하고 있다.

性理에서는 자기를 속이지 않는 無自欺와 홀로 있을 때를 삼가는 慎獨을 重視하고 있다.

左傳에서는 제일 높은 것이 덕을 세우는 일 〈大上有立德〉이며 다음은 선의 업적을 이루는 일 〈其次有立功〉 이고 그 다음의 일은 윤리의 성찰을 구현하는 말씀을 이루는 일 〈其次有立言〉 이라 하고 있다.

진정한 자기 완성 〈爲己之學〉을 본령으로 삼아 인간의 본성을 밝혀 천리를 실현하는 것이 인간의 사명이요 本務라고 하고 있다.

자기 완성이 없이는 사회완성을 이룰 수 없으며 성(誠) 경(敬)으로 자신을 수양하여 그 영향력이 사회인에게 미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사물의 합리성 객관적 실재성 및 주지적 논리성을 정립하여 사회의 밝고 건전하며 생산적인 명명(明明)을 구현하려고 한다.

生者の 地上神仙 실현은 地上존재의 半인 神明 마음 정신의 자각 성결 및 神聖과 其半인 물질성 색성을 合一시켜 나가는 계기력(契機力)의 도움으로 存在化 되어야 生者の 地上神仙實現이 可能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는 절대 神明力 및 上帝의식으로 實現可能的 틀을 짜낼수 있는 것이다. 生命力 神明力 이는 固形성과 流動성을 可逆化할 수 있는 動機의 힘인 계기력이 될 수 있는 要因으로 합일 되어야만 하며 地上神仙實現은 가속화된다.

語類에서는 理와 氣는 本來 선후를 말할 수 없지만 그 〈所從來〉를 말하면 먼저 理가 있었다 하고 있으나 理가 氣를 떠나서 혼자 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理는 氣가 發할 때 그 위에 올라 탈 수 있다 하였다.

卽 물질성 입자성 색성인 理는 神明性 정신성 타동성 비색성인 氣가 발할 때 그 위에 올라타서 결합력 합일력으로 절대 계기력 〈契機力〉 상제의 힘으로 우주의 존재(Sein)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生者の 地上神仙 실현은 生者の 터득 先覺 道通眞境으로 神明인 氣가 발할 때 물질성의 理가 그 위에 올라타서 합일력 절대 계기력 상제의 결합력으로 우주의 生者로 存在되어 地上神仙 실현을 이룩하게 되는 것이다.

死者의 地上神仙은 死者의 실재(Existence)인 과동성의 神明위에 生者の 先覺 道通眞境의 神明이나 死者 自身이 원래 가진 道通眞境의 타동 神明力에 의해서나 間에 위 신명력 위에 물질이 올라타서 우주존재로 되어져야 비로서 地上神仙 실현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고로 死者는 生者の 경우보다 地上神仙 실현을 위한 결합력성 실재력이 입자성 물질을 맞아 合一되어져야할 命題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불교의 理想을 人生 각자의 개인 완성과 國家完成에 두고 있다. 고로 인생은 其 本性을 찾아 其 人格을 完成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完成된 者를 覺者 卽 불타라고 한다. 그 覺者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

이 아니고 모든 사람 모든 생명체를 다같이 자기와 同等한 지위에 끌어 올리므로서 만족하고자 하는 것이다.

教主 釋迦牟尼佛이 成道후 산으로부터 도로 세속으로 내려와서 후 반생을 世俗 사람의 인격 완성과 인간 개조로 개인의 완성과 국가 완성에 헌신했던 경우가 바로 地上神仙실현의 기초정립을 한 事例였다고 볼 수 있다.

2. 〈正〉 과 지상신선

율곡은 孔子의 말을 引用하여 나라 다스리는 政治의 〈政〉은 〈正〉과 같다 하였다.

〈正〉은 우리말로 〈답다〉라는 뜻이다.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하고 어머니는 어머니다워야 하는 것이다. 남편은 남편다워야 하고 아내는 아내다워야 하는 것이다.

아버지가 아버지답지 못하고 어머니답지 못하고 남편이 남편답지 못하고 아내가 아내답지 못하면 其 국가 사회의 질서가 문란할 것은 明若觀火하다.

대통령은 대통령다워야 하며 장관은 장관다워야 한다. 국민은 국민다워야 하며 인간은 인간다워야 한다.

신명은 신명다워야 하며 물질은 물질다워야 한다 神聖은 神聖다워야 하며 現象은 現象다워야 한다.

地上神仙은 地上神仙다워야 할 것이다. 오빠는 오빠다워야 하고 언니는 언니다워야 한다. 동생은 동생다워야 하며 가정은 가정다워야 한다.

근래 靑少女들이 환호하는 오빠는 오빠다운 오빠가 아니다.

교수는 교수다워야 한다. 스님은 스님다워야 하며 신부는 신부다워야 한다. 보살은 보살다워야 하며 목사는 목사다워야 한다. 노동자는 노동자다워야 하며 회사원은 회사원다워야 한다. 정치인은 정치인다워야 하며 시장은 시장다워야 한다. 법관은 법관다워야 하며 교사는 교사다워야 한다. 국가는 국가다워야 하며 사회는 사회다워야 한다.

불은 불다워야 하며 산은 산다워야 한다. 지구는 지구다워야 하며 별은 별다워야 한다. 하늘은 하늘다워야 하며 천지인 일체는 천지인 일체다워야 한다.

법은 법다워야 하며 행정은 행정다워야 한다. 인간개조는 인간개조다워야 하는 것이다.

大道는 大道다워야 하는 것이다.

〈답〉 지 못하면 문제가 크다.

이는 절대 결합력 상제의 九天大宇宙의 절대 결합력의 질서가 다맞아야 한다.

大合一力 上帝의 큰 순환원리에 맞아야 한다. 대순원리는 대순원리다워야 하는 것이다.

〈다워야 하는〉 잣대는 人間誠意 人類平和 世界平和 宇宙平和의 눈금에 맞추어야 한다.

성실성이 없는 政治는 결국 허위요 기만이며 국민과 민족의 반역 행위가 되는 것이다.

성실성이 없는 人間은 治人 즉 위정자가 될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統率章〉에서는 정치 致中和의 功이 一家에 머물면 一家가 밝아지는 것이요 一國에 머물면 一國의 天地가 位하고 만물이 자라서 明德이 一國에 밝아지는 것이라 하였다.

이것이 天下에 미치면 天地가 位하고 만물이 자라서 明德이 天下에 이르러 밝아 진다 하였다.

3. 〈大同〉과 地上神仙

〈大同〉에서는 〈大道가 시행 될 때에는 天下가 公平되어 어진 사람을 선발하고 能한 사람에게 일을 맡기고 信義와 화목을 돈독하게 한다.〉 하였다.

고로 百姓들은 自己의 부모만 부모로 여기지 아니하고 自己子息만 子息으로 여기지 아니하며 늙은이는 終身할 곳이 있게 하고 젊은이는 쓰일 곳이 있게 하며 어린이는 자랄 곳이 있게 하고 홀아비와 과부와 고아와 불구자와 병자는 다 나아갈 곳이 있게 한다.

各己 직분을 갖게 하고 財貨는 땅에 내버리기를 싫어할지언정 반드시 自己의 所有로 하지 아니하며 힘은 自己의 몸에서 나오지 아니함을 싫어할지

언정 반드시 자기의 몸을 위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謀略이 없어지고 도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門戶를 열어놓고 닫지않게 되니 이것을 〈大同〉이라고 한다 하였다.

이것은 〈大同民本 경제〉의 기초사상이다. 大同은 가정평화 국가평화 인류평화 세계평화 우주평화의 초석을 다지는 기능을 해낼 수 있다.

V. 彌勒과 지상신선

1. 삼국

미륵은 산스크리트語의 Mitra에서 나온 친구의 佛, 계약의 佛, 미래에 나타날 佛이며 衆生에게 기쁨을 주고 슬픔을 代身하며 혼탁한 시대에 지표를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의 구혼을 약속하는 부처님이란 뜻이다.

불교는 궁극에 이르면 나 자신이 부처가 되는 종교이다.

나 자신이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한 점 의심없이 부처님을 확인하고 自證하는 종교이기도 하다.

미륵 부처님은 장차 오시는 부처님이자 마땅히 와야할 부처님이다. 고로 나 자신이 모두 바로 미륵불이라 할 수 있다. 고로 미륵 부처님은 없어서는 안될 희망의 등불이요, 삶의 길잡이인 부처님이시며 인간 자신이 미륵부처 되어 인간개조로 地上神仙實現을 先導할 부처님이시다.

고구려에서는 미륵 사상이 下生신앙으로 정착되었고 백제에서는 未來世를 기다리는 龍華세계의 부처로 신라에서는 개인의 修身과 治國의 理念으로 인간개조를 통한 지상신선을 이룩하여 급기야는 삼국을 통일하는 原動力이 된 龍華香徒의 제도로 정착되어 국가와 민족을 福되게 해오고 統治이념의 뿌리를 심어온 부처 사상이 되었다.

미륵 사상은 修身 齊家 治國 平天下 宇宙平和 地上神仙의 바탕이 된 政治史的 生活哲學的 宗教史的 의미를 지녔은 思想이었다.

2. 고려

고려에서는 미륵이 포은 보살로서 민중들에게 利他行을 행하고 끊임없이 베푸는 耆로서의 인식을 심어주고 백성은 받는자의 입장을 가지게 한 사상으로 定着되었다.

포이 바로 부처이며 미륵으로 하였으며 미륵이 바로 鎮護國家의 원력이라 하였다.

미륵 사상을 국가 민족의 지도원리로 삼았으며 國難克服을 위한 잠재된 힘을 끌어 내기위해 彌勒佛事를 한 것이다.

고려 미륵은 단순한 국가수호만은 아니었다. 개인의 기복과 수화와도 관련이 있었으며 인명과 재난을 막기위해 미륵불로 조성되고 받들어 지게 되었다.

3. 근세

조선시대의 미륵은 <當來佛>로서 미륵 下生の 출현을 갈망하는 계기가 되었다.

근세에는 증산이 彌勒佛로 자처했고 머지않아 彌勒佛國土가 이 땅에 건설되리라고 주장하였다.

구천상제로서의 증산이거나 彌勒佛로서의 증산이든 甌山은 彌勒佛이요 구천상제로 받들어 지고 있다.

甌山은 혼란된 社會를 수습하고 미륵의 理想세계를 건설하며 地上神仙을 실현코자 한국에 <降任한 미륵> 이었다.

甌山은 미륵 下生신앙으로 민중들을 껴 잡아 안음으로써 고뇌로부터의 해탈을 極大化시켰다.

소태산 박증빈은 彌勒下生신앙에 立脚한 새로운 민중불교를 일어켜야함을 절실히 깨달아 一圓相의 진리에 따른 원불교를 일으켰다.

누구라도 이 세상의 주인이 되며 法身佛의 진리를 바르게 깨치는 법을 터득한다 하였다.

미륵불은 따로 모셔지는 대상적 存在가 아니라 누구나 깨 달으면 서로 미륵불로 존중되며 우주의 주인이 된다는 것이다.

一圓相의 眞理屬性은 〈理〉와 〈光〉과 〈力〉이다. 〈理〉는 근원적 원리이고 〈光〉은 밝고 맑으며 〈力〉은 근원적 존재인 힘으로 정리했다.

其 原理의 과학철학적 배경은 다음과 같다. 〈理〉는 입자이며 현상이고 물질인 것이다. 색이 있고 필름에 현상되어 나오는 存在의 一部分이며 〈光〉은 〈파동〉과 알맹이인 〈光子〉로 구성되고 있다. 光波動은 실제성을 가지며 神明性을 가지고 색이 없다.

九天大宇宙 存在의 〈결합력〉 〈合一力〉을 근원적 존재인 〈力〉으로 하였다. 地上神仙은 宇宙存在의 半을 占하는 입자성 물질성 色性を 지닌 알맹이가 없고 其 半을 占하는 타동성 정신성 神明性 無色性の 자각 성결 神聖力 및 미륵의 〈合一力〉上帝의 〈結合力〉이 없고 받침되어 其可逆的結集이 되어져야 이룩될 수 있으며 實現되게 되는 것이다.

인간의 자각에 의한 地上神仙 실현이 可能하게 되는 것이다.

이 命題는 生産的인 人間의 자각 성결 터득 및 神聖에 依한 精神的 神明的 生命的 改造를 거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加速化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은 확실히 변혁이 요구되어지는 시기이며 사람의 세상이 아니라 짐승과 잡귀의 세상으로 바뀌고 있는 위기상황의 時期임을 부인할 수 없다.

미륵은 혼탁한 末法時代를 정화하기 위해 下生하고 모든 衆生을 고통으로부터 구제하고 바른法을 위해서 이 世上에 머무른다고 했다.

미륵은 시공을 초월해 오늘날의 세계에 필요한 절대적 要素인 것이다.

民衆과 떨어진 佛敎를 새롭게 일으키는 일은 미륵의 몫이 될 수 밖에 없다. 지금이 바로 미륵 출현의 時期인 것이다.

이런 유형의 이유 때문에 미륵이 이 世上에 머무르는 理由가 存在하는 것이다. 民衆은 未完成의 부처이다. 미륵의 위대성은 끊임없이 새로워지려는 努力에 있다. 〈새로움〉은 〈나아감〉이자 〈이끌어감〉인 것이다.

미륵은 나아가고 이끌어 가는데 其 本質이 있다.

4. 현대

미륵의 현대와 미래의 意味는 民衆의 쇄신 사회의 刷新에 있다.

各自가 부처임을 자각하고 부처가 되도록 새로 태어나고 이끌어 가는 일을 감내 하여야 하며 上帝의 〈결합력〉으로 인간의 개조에 이르러야 하는 것이다.

〈미륵불력〉이 〈大巡力〉이 〈上帝力〉이 감당해 나가는 길이 바로 인간개조를 통한 現代와 未來의 地上神仙實現이 성취되게 하는 길인 것이다.

VI. 四次元의 지상신선실현

1. 시간의 지상신선

부타불교에서는 오온의 실체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四次元性을 가진 시간의 실체도 있는 것처럼 비칠 뿐이라고 하였다.

彌勒宗에서는 有爲法은 인연이 집합한 것이므로 변천하는 것이며 그 변천에 따라 시간을 假立한 것이므로 결국 〈時間의 체성〉은 없다고 하였다. 다시 정리하면 만법은 다음의 相分으로 나타나는 것을 〈見分〉이 분별하여 時間이 있는 것처럼 〈假立〉한 것에 不過하다는 것이다.

만약 分別心이 없으면 시간도 없고 모두가 不變의 眞如法性 뿐이라는 것이다.

時間은 임시로 有爲法上에 假立한 것이며 實體는 없다는 것이다.

自覺 見性 道通으로 眞境에 이르러 上帝力으로 地上神仙이 이루어지면 현재와 미래의 〈체성이 없는 시간의 次元〉에 오르게 된다. 時間이란 생각의 분별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구사론〉에서는 어떤 힘센 壯士가 손가락을 튕길 때 64찰나가 지나간다고 하고 있다.

智度論에서는 손가락을 한번 튕기는 사이에 六十念이 있다 하여 〈一彈指頃 有六十念〉으로 表現한 바 있다.

그런데 其 一念은 瑞河沙세계에 이를 수 있는 짧은 사이를 말하고 또 一

念에는 〈九百生滅〉이 있다고 하고 있다. 시간이란 〈생각의 분별〉에 지나지 않으므로 일정하지 않는 것이며 一念에 90찰나가 있다고 했으나 〈佛自在故 一念爲多劫이며 多劫攝爲一念〉이라 하여 〈一念은 多劫이며 多劫은 一念〉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上帝力에 의한 一念의 道通眞境 境地에 이르는 地上神仙의 實現은 多劫에 살게 되는 것이다. 其 時間의 지속성은 一念에서 多劫으로 다시 多劫에서 一念으로 〈次元 軌道上의 가역전환〉이 이룩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 靜的인 지상신선실현

지상신선 실현의 平面的 二次元的 靜態的인 모습이다. 이 宇宙의 存在樣式中 點과 線의 연장 형태 面의 性格을 띤 地上神仙實現의 樣態이다.

〈論典〉에 의하면 被造物인 개체는 能造의 四大에 의거하여 존재하는 것이며 四大의 변천에 따라 함께 변천되지 않으면 않되는 因果關係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물질의 성질은 地水風火의 四大이며 이 四大에 의하여 물질의 개체가 형성된다. 그러므로 四大은 能造의 입장에 있고 개체는 被造의 입장에 있는 것이다. 被造物에 관한 것을 所造 所作 所成 所引 所生 所知合 所轉 所相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四大은 堅性 濕性 煖性 動性의 성질을 뜻하며 모든 物質은 이들 성질의 인연을 만나게 되면 인연이 모여드는 개체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그 개체는 반듯이 大小의 차별이 있게 마련인 것이다.

3. 素粒子 神明의 地上神仙

소립자는 인간과 宇宙 存在의 가장 작은 알맹이로 정리하고 있다. 人間 素粒子 및 宇宙素粒子의 半을 占하는 파동, 神明의 道通眞境力이 素粒子의 半을 占하는 粒子인 알맹이를 업고 짊어지고 하여 地上神仙을 이룩하게 한다.

現今 소립자에 대한 지식은 급속히 집적되고 있는데 아직 素粒子를 지배

하는 體系는 不完全한 點이 있다 素粒子 현상은 양자역학으로 지배되는 것은 아니며 그것을 지배할 수 있는 최종 해답이 따로 있는 것이다.

물질의 創生·消滅 원리의 경우 충분한 에너지를 가진 빛을 사용하면 진공으로부터 전자 양전자 한쌍의 물질을 創生할 수 있는 것이다. 빛의 속성은 광파동과 알맹이인 광자로 구성되어 있다.

卽 이 타동과 입자를 사용하면 진공으로부터 전자 양전자 한쌍의 물질을 創生할 수 있는 것이다.

소립자가 시간 공간적 구조를 가지는 것은 결국 시간이나 공간이 불가分割性을 가지기 때문인 것이다.

소립자는 그가 가진 속성 질량 스핀 반전성(Parity), 하전스핀 기묘도(Strangeness) 입자수의 존재성을 가지고 있어서 물질의 存在 本質性을 가지고 있다.

소립자는 중입자족(重粒子族), 중간자족, 경입자족(輕粒子族), 광자(光子)의 네가지로 크게 분류되며 현재는 약 300여 종류의 素粒子가 알려져 있다.

소립자는 중입자족이든 중간자족이든 경입자족이든 光子族이든 間に 存在의 本質的으로 크게 나누면 알맹이성과 파동성으로 크게 구분된다.

알맹이성은 粒子性 物質性 色性 形而下學性을 가지는 현상이며 파동성은 비색성 정신성 神明性 生命性 形而上學性을 가지는 것이다.

人間과 宇宙素粒子의 神明性 道通眞境性으로 인간과 우주의 物質과 粒子인 色性을 업고 上帝의 결합력 合一力으로 動的 生産的 地上神仙의 實現을 이룩하여 人類平和 世界平和 宇宙平和를 이룩하여야 한다.

3. 未來의 지상신선

모든 존재에는 물체를 성숙시키고 유지하는 業力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轉變시키고 변천시켜 나가는 業力도 있다.

이 業力이 상제의 결합력이며 이 업력으로 人間改造로 터득 道通 진경되어 低次元的으로는 靜的인 地上神仙 실현이 이룩된다.

이는 다시 未來의 지상신선으로 止揚되어 高次元的이고 動的이며 生産的인 地上神仙실현이 이룩되어야 有效需要의 平和 社會平和 人類平和 世界平

和 및 宇宙平和가 이루어지게 된다.

VII. 天道와 지상신선

1. 天地垂察과 지상신선실현

上帝께서는 어떤 公事를 행하셨을 때 사람이 道를 터득하기를 위하여 인간 개조로 지상신선 실현을 선도한다 하였다.

君主가 참된 君主되기를 원하고 아버지가 참된 아버지 되기를 원하고 스승이 참된 스승되기를 원하나 참된 신하가 없는 임금을 어찌 임금이라 되실 수 있으며 참된 아들이 없는 아버지를 어찌 아버지로 받들 수 있으며 참된 後學이 없는 스승을 어찌 스승으로 받들 수 있겠느냐고 하셨다.

그리하여 大大細細로 天地를 통찰하시며 내려다 보시고 垂察주문하시며 참된 인간개조로 天地를 개혁하여 지상신선을 先導 實現하였다.

모든 사람은 無作爲로 정신개혁이 되어야 神人造化로 人間改造가 可能하다 하였다. 인간은 참된 도통선경으로 인류의 지상신선을 이룩할 수 있게 되며 世界개혁을 이룩할 수 있는 것이다.

上帝의 結合力, 合一力으로 천지수찰하여야 動態的인 宇宙神仙을 이룩하게 되는 것이다.

2. 布德世人과 지상신선실현

上帝께서 公事를 행하실 때 대체로 글을 쓰셨다가 종도들에게 외위두도록 하신 <知覺 가르침>에는 인간이 神明을 얻어 世上에 布德하여 地上神仙 실현을 할 수 있는 敎理를 주셨다.

부처의 형태와 仙의 조화와 儒의 범절을 바탕으로 고요한 밤중 子時에 道傳하여 天開하고 丑時에 敎奉하게 하여 땅을 개혁하여 열고 不信人을 창으로 知覺하게 하고 寅時에 布德하여 世人을 깨어나게 하면 사람의 服中에 八十年을 깨쳐갈 神明을 얻게 되어 布德世人하여 地上神仙을 실현할 수 있게 하여 上帝의 合一力으로 動態的이며 生産的인 人類平和와 宇宙神仙을 실현

할 수 있게 된다 하였다.

상제께서는 모든 道通神과 文明神을 거느리고 각 민족들 사이에 나타난 여러갈래 文化의 알맹이를 뽑아 統一하여 물샷틈없이 도수를 짜고 선천의 도수를 뜯어 고치고 後天의 무궁한 仙境의 운도를 열어서 先天에서의 相剋에 따른 모든 원한을 풀고 相生의 道로서 세계의 創生을 건지려는 上帝의 뜻은 이에 世上에 이미 흥포된 일인 것이다.

人間改造는 上帝德化로 神人造化로 靜華世界 極樂世上으로 되는 道通眞境의 世界로 되는 일이다. 이 世界는 순간적이나 지속적 동태적 생산적인 屬性을 가지는 것이다.

3. 天道와 지상신선 실현

莊子에 따르면 <天道는 늘 돌고 지체함이 없다> 고 하였다. 그래서 만물이 생긴다고 하였다. 聖人の 道는 늘 운행하고 停止하지 않으며 天道에 밝고 聖道에 通하며 大通四達하는 者는 스스로 하는 일이 모두 고요하다 하였다. 그리하여 天樂을 아는 者는 하늘을 원망않고 사람을 그르다 않고 물건에 누를 끼치지 않으며 귀신을 책망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道는 큰데도 종국이 없고 작은 데도 남겨 놓지 않는다. 大小를 망라하여 만물을 그 속에 비치한다.

그래서 道는 광대하고 포용하는 것이 없으니 깊어서 측량할 수도 없다. <形德仁義는 神之末也> 라 하여 신묘한 道의 말단이라 하였다.

道는 연못같이 고요하고 감동되어야 응한다 하였다. 人間이 無爲의 道에 응하면 만사가 이루어지고 마음이 없이 얻으면 사람은 고사하고 귀신까지도 감복한다 하였다.

사람이 道에 응하면 만물을 그 속에 비치할 수 있으며 감동되면 응하고 성인의 道는 萬物을 그 속에 비치한다 하였다.

고로 人間이 天道에 따르면 우주 만물을 비치할 수 있으며 만사가 다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다. 이 天道에 따라 上帝님의 결합력으로 인간개조를 통하면 地上神仙은 이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모든 인류는 無爲로 天道에 따라 道通 眞境 되면 動態的이고 生産的인 地

上神仙 實現을 이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VIII. 結語

甌山은 인간 마음의 근본에 있는 불행의 씨앗인 원한을 완전히 없애고 인간본연의 사랑의 마음 互生の 덕을 회복하여 仙境으로 돌아가 地上神仙으로 돌아가자고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인간 神明 및 생명력 속에 있는 불행의 씨앗인 원한을 완전히 소멸시키므로써 해원 相生하여 地上神仙을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인간 및 우주존재를 구성하는 물질의 相生 神明의 相生이 先行되어야 한다. 더욱 人間間的 神明相生 및 物質相生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게 되므로써 宇宙自然속에 지니는 神聖君子가 아닌 生産的이고 活動的인 국가 및 세계 속의 生産 需要因子로서의 道通君子가 되며 同伴者가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비폭력 平和的으로 후천개벽의 혁명을 이룩할 수 있는 것이다.

天地人 共히 宇宙는 物과 神明 卽 粒子和 波動的의 반(50%) 반(50%)으로 하여 하나(100%)되어 존재한다.

故로 해원상생은 物質계와 정신계 粒子계와 파동계 一體의 통정순환에 있는 것이다. 막힌 곳을 뚫어야 가능한 것이다. 天界와 地界 파동과 입자 음과 양 비색계와 색계가 조화되는 곳에 宇宙平和의 길 地上神仙의 길이 열리는 것이다.

고로 人間の 死後가 아니라 바로 生前에 바로 인간으로 있으면서 神明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열리는 것이다. 神仙이 될 수 있는 길의 생각이 바로 大巡思想이며 이것이 바로 인간개조를 통한 地上신선실현의 길이 大通하게 되는 것이다.

甌山은 無自欺를 통한 人間改造로 布德天下 救濟蒼生 輔國安民으로 地上神仙을 실현하여 地上天國을 건설하려는 目標을 世紀前에 세워 이미 수많은 道人이 地上神仙 실현에 先導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 生産性和 合理性이 共鳴되어 全人類가 實現하게 되며 이어 世界平和 및 宇宙平和의 大道가 열리게 되는 것이다.

人間改造은 人間改造다워야 하며 地上神仙실현은 地上神仙실현 다워야 하는 것이다. <다워야 하는 잣대>는 人間 誠實 人類平和 世界平和 및 宇宙平和의 눈금에 맞추어야 하는 것이다.

다워야 하는 잣대에 맞는 人間改造를 통한 地上神仙 실현이 이루어져야 한다.

미륵사상은 修身 齊家 治國 平天下 宇宙平和 및 地上神仙 실현의 바탕이 된 統治史的 生活哲學的 宗教史的 뜻을 가진 사상이었다.

九天上帝로서의 증산이거나 彌勒佛로서의 증산이든 甌山은 彌勒佛이요 九天上帝로 받들어지고 있다.

증산은 혼란된 사회를 수습하고 미륵의 理想世界를 건설하여 地上神仙을 실현코자 한국에 降世한 미륵이었다. 증산은 미륵 下生신앙으로 민중들을 껴잡아 안으므로서 인간의 고뇌로부터의 해탈을 極大化시켰다. 그는 先覺者 이시며 民衆의 길잡이였으며 聖人의 境地에 이른 터득人 道通人 眞境人이었다.

道는 연못같이 고요하고 감동되어야 응한다 하였다. 人間이 無爲의 道에 응하면 萬事가 이루어지고 마음이 없이 얻으면 사람은 고사하고 귀신까지도 감복한다 하였다.

고로 人間이 天道에 따르면 宇宙萬物을 비치할 수 있으며 萬事가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 天道에 따라 上帝님의 결합력 合一力으로 인간개조를 통하면 地上神仙의 실현은 이룩할 수 있으며 人類平和 世界平和 및 宇宙平和를 이룩하게 되는 것이다.

【참고문헌】

- 金敬琢 (1991) 思想界 Vo 1.7 P. 184-195
金東成 譯 (1978) 老子 乙酉文化社 P. 94-121
金東華 著 (1978) 俱舍唯識 寶蓮閣
中村元 (1959) 印度思想史 岩波書店
高崎直道 (1983) 佛教人間 東京大學出版會
大巡眞理會 教務部 (1989) 典經 P. 128-310 大巡眞理會 出版部
李智冠 (1992) 韓國佛教文化史 (上) P. 66-94
井尻正二 (1966) 科學論 築地書館 東京
蒲生禮一 (1958) 『이슬람』 岩波書店
安德勇 (2001) 典經註解 note
Baitsell G (1949) Science in Progress Vol. 1.6. Yale Univ.
Herbert B (1957) The Origin of Modern Science The Free Press NewYork
Max Muller, F. (1873) Introduction to Science, London
Wach, Joachim (1958) The Comparative Study of Religions, New York